

창세기38:26-30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38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유다에게 3아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첫째는 엘입니다. 둘째는 오난입니다. 셋째는 셀라입니다. 큰 아들을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 시켰는데 그만 아들이 결혼 한지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큰 아들의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오난과 다시 결혼 시킵니다. 그런데 그도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결혼할 나이가 안되니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막내가 어른이 되면 그때 다시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친정에서 기다리는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자기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유다가 양털을 파기 위해 덩나로 올라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그녀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거리의 여인으로 변장합니다. 유다가 그녀를 창녀로 알고 그와 관계를 갖습니다. 이후에 유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다말을 불사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말의 손에서 유다의 도장과 끈이 나옵니다. 성경은 유다보다 다말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결정적인 문구가 유다의 입에서 고백한 "내가 나보다 옳다"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말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했는가?

1. 다말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유다가 다말에게 아비 집에 가서 수절하라고 한 데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다말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유다가 원한 것이 아니라 다말 자신이 유다의 집에 남기를 강력하게 요구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말이 유다의 집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다말은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아 합법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다가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는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말은 유다를 통해 야곱 집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특히 후손과 땅의 약속을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씨를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쥐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열망입니다. 단지 유다의 재산이 탐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으로 하여금 그 나라 안에서 당당하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하고야 말겠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2. 다말의 지혜

당시 유대의 정통에는 '고엘'이라는 이브리적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히브리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친족을 위해 그 토지를 대신 사 주는 행위와 그토지를 대신 사주는 사람을 '말' 할때 '고엘'이라고 했다. 죽은 자를 대신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던 중 유다가 자기의 양털을 파고 덩나로 올라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덩나 길 끝 에나임 문에 앉으니. 18절에 다말은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 이것들은 다말 자신을 보호할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 됩니다.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입자로 말미암아 임신 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26절: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아보다 옳도다. 중요한 것은 다말의 이러한 계획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등극 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다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유다는 과거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비 인간적인 행동에 대해서 자괴감 내지는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살기 보다는 가정과 요셉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아버지 야곱을 떠났습니다. 이 떠남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방여인과 결혼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소위 갈대까지 간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말이 간음한 여인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잘 됐다 이참에 내 아들을 삼킨 자를 불살라버리라 생각했으나 결국 자신의 죄를 알게 하고 그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말을 살리고 다말이 낳은 자녀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잃어버린 유다를 찾으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 / 213.505.4889(목사관)